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1

윤석진*

〈차례〉

1. 들어가는 말
2. 2000년대 이전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흐름
3. 2000년대 이후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상상력
4. 나가는 말

〈국문초록〉

1964년 <국토만리>가 방영된 이래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반복적으로 호출하거나 재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역사드라마가 매번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당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수없이 많은 인물과 그들의 삶이 축적된 수천 년의 역사에서 ‘어느 시대, 어떤 인물’을 소환하느냐는 전적으로 작가와 연출자의 몫이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선택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청자의 몫이다. 따라서 만약 역사드라마로 소환된 인물이나 사건이 시청자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 말을 건네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 역사드라마가 될 수 있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시청자의 역사의식이 중요한 것도 그래서이다. 이처럼 과거를 이야기하되 언제나 현재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드라마의 숙명이다.

본고는 ‘가능성’과 ‘상상’을 중심으로 창작된 2000년대 역사드라마의 상상력을 의식과 정서의 차원에서 ‘민족적 의식 고양’, ‘정치적 의식 각성’, ‘혁명적 의식 고취’, ‘열정적 감성 강조’, ‘복고적 정서 자극’ 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민족적 의식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주몽>·<태왕사신기>·<전우>·<로드 넘버 원>이고, 정치적 의식 각성을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대왕세종>·<뿌리 깊은 나무>·<이산>·<선덕여왕>이며, 혁명적 의식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다모>·<성균관 스캔들>·<돌아온 일지매>·<추노>

이다. 그리고 열정적 감성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대장금>·<경성 스캔들>·<공주의 남자>·<해를 품은 달>이고, 복고적 정서 자극을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에덴의 동쪽>·<자이언트>·<제빵왕 김탁구>·<빛과 그림자>이다. 2000년대 역사드라마의 극적 상상력을 분석한 결과 ‘기록된 역사’를 토대로 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나 역사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상으로서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르적 외연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상상으로서의 이야기, 민족의식 고양, 정치의식 각성, 혁명의식 고취, 열정적 감성 강조, 복고적 정서 자극.

1. 들어가는 말

‘역사’는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지나지 않는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여 극적으로 재현하는 역사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도 그래서이다. 특히 현재의 삶이 고달프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재할수록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지나온 시간의 궤적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다. 역사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인물이나 사건이 현재적 맥락 위에서 재해석되고 의미를 부여받는 까닭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아무리 민족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인 사건이나 인물일지라도 만약 극적인 흥미가 없다면 역사드라마로 소환되기 어렵다.¹⁾ 수많은 역사드라마에서 특정 사건과 인물이 반복적으로 재해석되는 것도 그래서이다.

주지하다시피,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하거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창작된 극양식이다. 역사드라마의 개념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www.kci.go.kr
1) 이다운, 『TV드라마의 역사적 인물 소환 전략』,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학연구』88호, 2012. 9, 103쪽 참조.

이나 장르 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²⁾가 이루어졌지만, 극예술의 하위 장르에 해당하는 ‘연극·영화·TV드라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치되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역사극·사극·사극영화·TV사극·역사드라마’처럼 극예술의 하위 장르에 따라 ‘역사드라마’를 지칭하는 용어가 각기 다른 것은 ‘연극·영화·TV드라마’의 매체적 속성과 관련하여 풀어야 할 문제이다. ‘역사드라마’의 장르 규정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학문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어떤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사실(fact)’로서의 ‘역사(歷史)’와 ‘허구(fiction)’로서의 ‘드라마(Drama)’가 결합된 극예술이라는 역사드라마의 장르적 속성은 변함이 없다.

2000년대 이전까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는 비교적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디지털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수용하는 시청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역사학 분야에서 미시사 연구가 활발해진 2000년대를 전후로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서 소재를 취하되 역사적 개연성과 허구성의 외연이 확장³⁾되면서 왕조 중심이 아닌, 천천 태생의 신분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를 된 허준의 생애를 다룬 <허준> 같은 역사드라마가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정사(正史) 기록물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성을 강화⁴⁾하면서 교훈과 계몽을 목적으로

권위적인 해설자에 의해 근대적 역사관을 구현하고자 했던 ‘정통사극’⁵⁾과 구분하고자 기존 방식과 다르게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역사드라마들이 ‘퓨전사극·픽션사극·판타지사극·픽션사극’ 등의 용어로 불리면서 2000년대 이후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하거나 과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포괄하는 맥락에서 ‘역사드라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⁶⁾ ‘역사드라마’의 개념이나 장르적 속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에 나타난 상상력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연구 목적이기 때문이다.

역사드라마의 경우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혹은 역사적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 또는 상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상상됨으로써 다중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역사’의 속성을 견지한다. 이는 곧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각적으로 재현되는 역사드라마의 속성이 과거가 아닌 현재를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 시간과 공간적 배경 속에 놓여 있는 등장인물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역사드라마라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드라마는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거나 세상의 화젯거리를 제공한다.

본고는 ‘가능성’과 ‘상상’을 중심으로 제작되어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2000년대 역사드라마에 나타난 경향을 의식과 정서의 차원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본 뒤, ‘역사’에 대한 작가의 상상력이 역사드라마의 장르적 속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000년대 역

2) 2000년대 이후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개념과 장르 규정에 대한 논의는 주창운의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 과정」(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극예술연구』25집, 2007), 배선애의 TV드라마 <주몽>에 나타난 영웅 신화의 형상화 방법」(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극예술연구』25집, 2007), 양근애의 TV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구현 방식」(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극예술연구』28집, 2008), 박노현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아나크로니즘의 기획·미니시리즈 <추노>의 형성소를 중심으로」(대중서사학회 편, 『대중서사연구』23집, 2010), 박상완의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추노> 연구」(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등이 대표적이다.

3) 주창운, 『텔레비전 드라마 : 장르·미학·해독』, 문경, 2005, 38쪽.

4) 이영미, 『라디오·TV 왕조사극의 경향과 그 의미』,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 장르의 모든 것 : 2. 역사허구물』, 이론과실천, 2009, 367쪽.

5) 박상완, 앞의 논문, 21쪽.

6) 이 경우 등 기존에 관습적으로 지칭하던 다양한 유형의 역사드라마들을 포괄하여 논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역사드라마’의 개념과 장르적 속성에 대한 혼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유형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잠정적으로 ‘역사드라마’로 통칭함을 밝혀둔다.

사드라마의 상상력은 ‘민족적 의식 고양’, ‘정치적 의식 각성’, ‘혁명적 의식 고취’, ‘열정적 감성 강조’, ‘복고적 정서 자극’ 등의 다섯 가지⁷⁾로 분류할 수 있다. 민족적 의식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주몽> · <태왕사신기> · <전우> · <로드 넘버 원>이고, 정치적 의식 각성을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대왕세종> · <뿌리 깊은 나무> · <이산> · <선덕여왕>이며, 혁명적 의식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다모> · <성균관 스캔들> · <돌아온 일지매> · <추노>이다. 그리고 열정적 감성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대장금> · <경성 스캔들> · <공주의 남자> · <해를 품은 달>이고, 복고적 정서 자극을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에덴의 동쪽> · <자이언트> · <제빵왕 김탁구> · <빛과 그림자>이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상상력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역사드라마의 장르적 외연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본고에서 검토한 20편의 역사드라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별도의 논의⁸⁾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2. 2000년대 이전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흐름

1964년 7월 8일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전설을 소재로 한 <국토만리> 방영⁹⁾ 이후 전설 또는 설화를 소재로 한 ‘아담물(野談物)’이나 ‘애정물(愛情物)’과 사료(史料)에 바탕을 둔 ‘역사물(歷史物)’이 제작 · 방영되었다.

7) 다섯 가지 항목은 경우에 따라 일부 중첩될 수 있으나, 핵심 서사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임을 밝혀둔다.

8) 논지 전개에 효율성을 위해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극적 상상력을 먼저 정리하여 발표하고, 본고에서 검토한 20편의 역사드라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2」라는 논문을 통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9)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나남출판, 1994, 169쪽.

<수양대군>, <민며느리>, <회심곡> 등이 1960년대 대표적인 작품들이다.¹⁰⁾ 1976년 공포된 문화공보부의 지침에 따라 ‘국난 극복사’를 소재로 한 ‘국난극복사극’ 혹은 ‘정책사극’이 강조되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역사드라마”에서 “작가의 역사적 해석이 가미된 역사드라마”로 변화되었다. 당시 정치권력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극으로서의 역사드라마가 이용되었던 것이다.

근대 국가 이전에 없던 ‘국민’이라는 어떤 실체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억을 선별하고 공통의 기억으로서의 역사를 만들고 기억시키는¹¹⁾ 과정에서 역사드라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역사드라마가 주로 국난극복의 영웅, 위인, 장인 등의 일대기를 소개하기 위해 신라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제작 · 방영¹²⁾되었던 것도 그래서이다. ‘역사’라는 단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주의’ 성향에서 비롯한 것이겠지만, 초창기 역사드라마는 국민 통합과 결속이라는 명분하에 ‘정책사극’으로 제작되어 교육과 계몽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충무공 이순신’ 같은 민족의 영웅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을 재현함으로써 애국심을 자극했던 것이다.¹³⁾ <명인

10) 1960년대 역사드라마는 공영방송 KBS의 <국토만리>로 시작되었으나, 정작 역사드라마를 대중적인 장르로 자리매김 시킨 것은 1964년 개국한 민영방영 TBC였다. <민며느리>, <갑이>, <경정부인>, <한양낭군>, <갑자맹기>, <상궁나인>, <수첩기생>, <공주며느리>, <언제나 오실랑고>, <여인천하>, <이성계>, <원효대사>, <성춘향>, <두 나그네>, <황진이>, <오동잎 지는 밤>, <조선총독부>, <김옥균>, <김유신>, <팔관동 새 아씨>, <다방골 알부자>, <다전기담> 등 대부분의 역사드라마가 TBC에서 제작 · 방영된 것이다(오명환, 앞의 책, 170~171쪽). 이 가운데 상당수의 작품이 ‘라디오 역사드라마’를 집필했던 ‘이서구’의 작품인데, 그는 오랫동안 역사드라마를 도맡아 쓰다시피 한 작가였다(이영미, 앞의 글, 361쪽).

11) 이진경 편,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258쪽 참조.

12) 박상완, 앞의 논문, 23~24쪽 참조.

13) 1970년대 ‘목적극’으로서의 ‘역사드라마’가 강조되었던 것은 당시 연극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통과 역사를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주국방’과 ‘국민총화’로 집약되는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작품들이 ‘국립극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생산되었던 것이다(백소연, 1970-1980년대 역사극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6~54쪽 참조).

백서>, <맥>, <역사의 인물> 등이 ‘목적극’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진 1970년대 작품들이다.

그러나 정작 시청자들이 선호했던 역사드라마 장르는 따로 있었다.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에서 굴곡 많은 삶을 살았던 여성의 일생을 다룬 <아씨>와 <여로>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외에도 충의효열의 중세적 의식과 신파적 세계 인식¹⁴⁾에 입각한 <연화>, <여보 정선달>, <장희빈>, <임금님의 첫사랑>이나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라디오드라마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전설의 고향>처럼 설화와 전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1970년대 대중적인 서사물로서 역사드라마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1980년대 역사드라마는 ‘컬러 방송’이라는 기술 발전의 여파로 미술 분야의 ‘고증’을 중시하면서 ‘왕조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정책사극’이 1980년대 이후 <조선왕조오백년시리즈>처럼 정사(正史)를 중심으로 야사(野史)가 결합된 ‘궁중비사(宮中秘史)’를 소재로 한 역사드라마로 변모된 것이다. KBS의 <풍운>, <개국>, <독립문> 등은 물론 1983년 <추동궁마마>로 시작하여 <뿌리 깊은 나무>, <설총대>, <임진왜란>, <회천문>, <남한산성>, 인현왕후>, <한중록>, <파문>, <대원군>으로 이어졌던 MBC의 <조선왕조오백년시리즈>¹⁵⁾가 대표적이다. <조선왕조오백년시리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가의 해석을 대중적 이면서도 교조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전까지의 신파적인 가족 물이나 애정물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물¹⁶⁾로의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권모술수와 음모,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여인들의 쟁투를 다룬 1980년대 역사드라마는 시청자의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14) 이영미, 앞의 글, 361~362쪽 참조.

15) 박상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 풍란> 연구, 한국언어문화학회 편, 『한국언어문화』48집, 2012. 8, 47~48쪽.

16) 이영미, 앞의 글, 368쪽.

1991년 <대원군>을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오백년시리즈>가 종영된 이후 역사드라마는 유례없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¹⁷⁾ 1992년 비교적 큰 규모로 제작·방영되었던 <삼국기>가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역사드라마가 침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1996년 11월 KBS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이 방영되기 전까지 지상파 방송 3사는 역사드라마를 편성하지 않거나 ‘특집드라마’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을 최초로 다룬 <새야 새야 파랑새야>, 역사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미니시리즈’¹⁸⁾ 형식을 취했던 <비검>¹⁹⁾ 등 내용적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예고되었던 것이 1990년대 초반이기도 했다.²⁰⁾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침체기는 15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여 앞둔 1996년 11월 방영을 시작한 <용의 눈물>로 끝이 난다. 정사를 중심으로 하되, 야사를 극적으로 삽입해 역사적·극적 개연성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사실과 허구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용의 눈물>

17) 이병훈, 『TV사극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53~54쪽 참조.

18) ‘미니시리즈’ 형식은 1987년 초에 MBC에서 우리나라 방송 사상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것으로 일일연속극의 경박함이나 주간연속극의 타성에서 벗어나 소재와 주제에 적합한 기동력을 펼칠 수 있는 극성이 강한 양식이며, 기획적인 소재 선택에 따라 2회 이상 20회 이내에서 알맞은 횟수로 구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이환경, 『TV 드라마 작법』, 청하, 1996, 440쪽 참조). 그러나 ‘월/화, 수/목 밤 10시 대 편성’이 정착된 이후 미니시리즈 드라마는 물리적 분량 면에서 16~32부 내외로 구성되면서 ‘일일/주간 연속극’과 구분되고 있다.

19) 박상완(2011), 앞의 논문, 26쪽 참조.

20) 이 시기에 기존의 역사드라마가 보여주었던 드라마의 정치성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역사적 사건을 극적으로 형상화한 <여명의 눈동자>와 <모래시계>에서 드러났다. 등장인물들의 강한 성격화와 극적인 구성, 뛰어난 장면 연출, 배경음악의 적극적 사용 통한 서정성 강화 등이 돋보였던 두 편의 작품들은 정치적인 관심이 높은 젊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영미, 앞의 글, 375쪽). 이처럼 1980년대에 조선시대가 주요 배경이었던 역사드라마를 통해 형성되었던 사회적 담론이 1990년대 초반에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역사드라마’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의 확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드라마’와 ‘시대극’을 분류하는 연구 경향에 대해 문체 제기가 되고 있지만(박노현,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188~211쪽 참조), 학술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은 15대 대통령 선거 정국과 맞물리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었다.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정치적 혼란상을 다룬 <용의 눈물>의 성공을 계기로 과거와 현재의 대화로서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역사드라마의 특성이 도드라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왕과 비> 그리고 <여인천하>처럼 왕조나 사대부의 권력 쟁투를 다룬 정치물로서의 역사드라마가 주류를 형성하였다.²¹⁾ 이처럼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되, 당대 정치권력에 대한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역사드라마는 이른바 ‘정통사극’으로 불리면서 동시에 역사 왜곡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역사 왜곡이나 고증 시비는 역사드라마를 여전히 역사 교육과 민족의식 고취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2000년대 이후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상상력

2000년대는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매체의 일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방송 플랫폼의 변화가 예고된 시기였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 환경의 구축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과정에 시청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일방적이었던 텔레비전 드라마의 수용 과정이 제작진과 시청자의 양방향 소통으로 변화되었다.²²⁾ 특히 역사드라마의 경우, 그동안 역사적 사실의

21) 1990년대 KBS대하드라마를 통해 장르적 정체성을 분명히 한 ‘정통사극’은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 당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고증을 통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재해석은 방영 당시 현실 정치에 대한 비유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KBS1 TV를 통해 방영된 <태조 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서울 1945>, <대조영>, <대왕 세종>, <천추태후> 등 1990년대 정통사극의 계보를 형성한 작품들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22) 윤석진, 『디지털 시대, TV드라마 연구 방법 시론(試論)』,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극예술연구』 37집, 2012. 9, 206~207쪽 참조.

재구성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 사실 여부보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작된 허구의 세계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2000년대 이후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외연 확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2년 10월 한국 최초의 HDTV드라마로 제작·방영된 <대망>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남자의 야망과 사랑을 무협(武俠)의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주목을 받은 것에 이어, 2003년 7월 방학기 화백의 만화 <조선조 여형사 다모>를 원작으로 한 <다모>가 두 번째 HDTV드라마로 제작·방영되어 ‘퓨전사극’ 열풍을 주도하면서 역사드라마의 장르 지형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디지털 매체 발전과 더불어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역사드라마는 정치·경제 중심의 거시사에서 일상생활과 문화에 초점을 맞춘 미시사로 역사 연구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한 경향과 맞물리면서 ‘퓨전사극’과 ‘팩션사극’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²³⁾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되, 역사적 기록이 아닌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작되면서 1990년대 역사드라마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망>과 <다모>로 인해 ‘퓨전사극’이나 ‘팩션사극’과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퓨전사극’은 기존의 역사드라마에서 보기 어려웠던 현대적 감각의 등장인물이 ‘정통사극’ 특유의 고어체가 아닌 현대어 대사를 사용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작품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팩션사극’은 최소한의 ‘역사적 사실(fact)’에 근거 하되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한 ‘허구(fiction)’의 속성이 강한 작품을 의미하는 용어로 저널리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²⁴⁾

23) ‘팩션사극’에 대한 논의는 주로 역사학자 김기봉에 의해 주도되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푸른사상, 2000), 『팩션시대, 영화와 역사를 중매하다』(프로네시스, 2006), 『역사들이 속삭인다』(프로네시스, 2009) 등의 저서는 주로 ‘영화’를 중심으로 한 ‘팩션사극’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로 참고할만하다.

24) 이른바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 충실했던 ‘정통사극’과 구분하기 위해 ‘퓨전사극’이나 ‘팩션사극’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미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본고에서

<대망>과 <다모> 방영을 계기로 ‘퓨전사극’이나 ‘팩션사극’이라는 신 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1990년대와 확연하게 다른 경향을 보여준 2000년대 텔레비전 역사드라마는 기존의 ‘기록된 역사’를 토대로 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나 역사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상으로서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르적 외연을 확장해 나갔다. ‘가능성으로서의 역사’는 그 자체로 완결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의 ‘역사’²⁵⁾를, 그리고 ‘상상으로서의 이야기’는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되, 역사적 기록이 아닌 작가의 상상력으로 ‘역사 효과’를 일으키는 창작물을 의미한다. ‘역사 효과’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수용자의 ‘역사성’을 자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역사가 다양한 사실들과 사건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이고, 하나의 서사(narrative)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²⁷⁾을 감안할 때,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창작된 ‘상상으로서의 이야기’가 ‘역사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그래서이다.

역사드라마는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계이지만, 그 세계가 촉발시킨 ‘역사 효과’는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이 생각해봄직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담론의 장을 형성한다. 특히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극적 상황에 몰입하기도 하고, 등장인물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는 시청 경향은 ‘고증’이나 ‘역사 왜곡’과 같은 시비가 일

는 ‘역사드라마’라는 용어에 이미 ‘사실’과 ‘허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그동안 저널리즘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던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역사드라마’로 통칭하도록 하겠다.

25) 양근애, 앞의 논문, 313쪽.

26) 신역사주의 해석에 따르면, ‘역사 효과’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수용자의 ‘역사성’을 자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기봉, 역사극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효과, 한국드라마학회 편, 『드라마연구』34집, 2011. 6. 27~28쪽 참조). ‘역사 효과’라는 용어 이전에는 ‘상상적 역사서술방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는데(주창원, 앞의 논문, 374~376쪽 참조),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사드라마가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의 결합으로 창작된 허구물이라는 입장에서 ‘역사 효과’를 일으키는 ‘상상으로서의 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7) 이진경 편, 앞의 책, 260쪽 참조.

마나 무의미한지 잘 보여준다.²⁸⁾ 역사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적극적인 개입은 한 편의 역사드라마에 내재되어 있는 역사성을 현재적으로 해석하면서 지나간 과거가 아닌, 미래 지향적인 역사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드라마에 대한 시청자의 수용 태도 변화는 권력과 출세에 대한 욕망, 그리고 권력 쟁투의 과정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주인공이 강조되면서 역사적 사실 전달보다 극적 갈등과 대립을 첨예화시킨 역사드라마의 높은 시청률로 이어졌다.²⁹⁾ 그 결과 기존의 정사 중심의 작품에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수시로 등장하던 권위적인 목소리의 해설이 사라지고, 전통음악이 아닌 현대적 감각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등의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 변화를 선도하면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들은 <다모>, <대장금>, <주몽>, <태왕사신기>, <이산>, <대왕세종>, <선덕여왕>, <성균관 스캔들>, <공주의 남자>, <돌아온 일지매>, <추노>, <성균관 스캔들>, <뿌리 깊은 나무>, <해를 품은 달>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근·현대사’를 시간적·공간적 배경으로 시청자의 복고적 정서를 자극시키는 작품들도 2000년대 역사드라마의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다.³⁰⁾ 그동안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의 경우, 일반적

28) 실제로 2000년대 역사드라마를 둘러싼 ‘고증’이나 ‘역사왜곡’ 문제는 1990년대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병훈 감독이 2010년 <동이> 연출 당시, 조선시대 여인의 사치품과도 같았던 ‘가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부 ‘고증’ 시비가 있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2011년 방영되었던 <공주의 남자>의 경우, 김승유와 이세령의 관계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은 역사드라마의 극적 상상력을 인정하면서 소송을 각하(却下)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가 ‘고증’과 ‘역사왜곡’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9) 이영미, 앞의 글, 385쪽.

30) 역사드라마 장르를 규정하는 요건에는 대부분 물리적 시공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역사드라마’는 일제강점기까지, ‘시대극’은 1950년대 말까지, ‘현대극’은 그 이후를 시공간적 범주로 설정한다는 주장(이병훈, 앞의 논문, 11쪽 참조)에서부터, 역사성과 허구성이라는 이중적 요구를 만족시켜 현재적 재해석이 가능한 최소의 시간이

으로 ‘시대극’이라는 용어로 통칭하면서 역사드라마와 구분하는 경향이 강했다. 근·현대사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할 경우, 이해 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확연하게 갈라져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역사드라마’ 대신 ‘시대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근·현대사 역시 엄연히 역사적 시·공간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시대극’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시대극’으로 분류되던 역사드라마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론적 거리 확보가 쉽지 않아 극적 상황에 대한 정서적 동화가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 물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작가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근·현대사에 기록된 내용을 소재로 취한 경우를 포함하여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작된 허구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경우 ‘역사 효과’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드라마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에덴의 동쪽>, <사이언트>, <전우>, <로드 넘버 원>, <제빵왕 김탁구>, <빛과 그림자>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역사적 사실 여부보다, 역사적 기록 사이의 틈에 대한 상상력에 근거하

40~60년이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그만큼의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언론학보』48집, 2004, 170쪽 참조),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역사드라마의 인식론적 창작 조건을 상기시키기 위해 40~60년의 최소한의 시간적 거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박상완(2011), 앞의 논문, 19쪽 참조)까지 역사드라마의 시공간적 범주 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역사드라마’와 ‘시대극’을 별개의 장르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근·현대사 역시 ‘역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른 장르로 분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역사드라마’를 ‘시대극’으로 대체하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시대극’으로 용어를 대체하는 주장은 ‘과거’의 ‘역사’를 질료로 삼는다고 했을 때 과거라고 명명할 수 있는 기점 자체가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어떠한 역사적 사건 혹은 인물의 선택이 역사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것 역시 주관적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들고 있다(박노현, 앞의 책, 207쪽 참조). 하지만 이 경우 역시 ‘현대’라는 시공간적 범주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시대극’이라는 용어 대신 ‘역사드라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 현재적으로 창작된 작품들이 대부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가 교육과 계몽의 강박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 변화에 대한 시청자의 호응이 적극적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통합 기체로서의 역사드라마 역시 꾸준히 제작·방영되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르 외연이 확장되면서 다양해진 2000년대 역사드라마는 주제 의식과 정서의 층위에서 ‘민족적 의식 고양’, ‘정치적 의식 각성’, ‘혁명적 의식 고취’, ‘열정적 감성 강조’, ‘복고적 정서 자극’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민족적 의식 고취를 위한 상상력은 2000년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교조적이고 계몽적인 틀에 갇혀 있었던 이전과 달리 2000년대에는 시청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민족적 의식 고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한국의 역사인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기 위해 기획·제작되었던 <주몽>, <대조영>, <연개소문>, <태왕사신기> 등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역사드라마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우리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민족의식의 발현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조선왕조 중심의 역사드라마에 변화의 바람을 가져온 계기가 되기도 했던 일련의 고구려 관련 역사드라마들이 ‘민주별관’으로 상징되는 잃어버린 고토(古土)에 대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자극하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역사의 시대가 아닌 신화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주몽>과 <태왕사신기>가 신화로 학습 받았던 고구려의 건국과 시조 ‘주몽’의 신성성을 제거하면서 상상력으로 극적 개연성을 확보하여 시청자의 교감을 이끌어냄으로써 민족적 의식을 고취시킨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민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을 통해 반세기 넘게 휴전 상태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각성시킴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우>와 <로드 넘버 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기습적 남침에 대항하는 약 1여 년간의 전투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준 <전우>, 한국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청춘남녀의 사랑과 생사를 함께 한 전우들의 우정을 그린 <로드 넘버 원>은 한국전쟁의 상흔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상기시키면서 분단 현실에 대한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과거의 ‘반공드라마’ 틀에서 벗어나는 미학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둘째, 정치적 의식 각성을 위한 상상력은 기본적으로 방영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역사적 영웅으로 평가받는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일련의 역사드라마들은 주인공의 통치 행위를 통해 방영 당시의 현실 정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회의 이상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그 가치를 대표할 만하거나,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 대중을 이끌고 세상을 경륜할 만한 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일련의 역사드라마를 통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모색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³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聖君)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을 통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 <대왕세종>,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추리서사로 풀어내면서 정치의 본질을 파헤친 <뿌리 깊은 나무>, 조선시대 개혁군주로 평가받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독살설로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정조대왕의 일대기를 다룬 <이산>, 한민족 최초의 여성 임금이었던 선덕여왕의 정치적 성장기에 초점을 맞춘 <선덕여왕> 등은 시청자의 정치적 의식을 각성시키면서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제시한 역사드라마들이다.

셋째, 혁명적 의식 고취를 위한 상상력은 현실 세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31) 민족의 영웅을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지도자’로서 재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전통적 의미의 영웅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드라마들이 시청자의 외면을 받은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웅이면서도 폐망국의 장군이라는 형용모순으로 일그러진 ‘계백 장군’의 일대기를 통해 백제사를 재조명하겠다는 계몽성을 숨기지 않는 <계백>이나 ‘권력’을 향한 영웅의 원초적 욕망을 거칠게 풀어가는 <무신>이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이 많을수록,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다룬 역사드라마를 통해 현실 세계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깊어지는 정치 불신과 IMF 체제 이후 좀처럼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점점 더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모색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역사’로 향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지나온 시간의 궤적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인간의 성향 때문이다. 현실 변혁에 대한 열망은 혁명적 의식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발휘된 일련의 역사드라마의 시정률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 관아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했던 ‘다모(茶母)’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현실 변혁의 열망을 담아낸 <다모>, 정조시대의 성균관을 배경으로 성균관 유생들의 개혁의지를 감각적으로 풀어낸 <성균관 스캔들>, 병자호란 이후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도망간 노비를 쫓는 ‘추노꾼’을 비롯하여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교차시킨 <추노>, 혼란의 시대가 잉태한 의적 일지매의 성장기를 다룬 <돌아온 일지매> 등은 혁명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상상력이 발휘된 역사드라마들이다.

넷째, 열정적 감성 고취를 위한 상상력은 사랑이나 욕망과 같은 개인적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역사드라마는 어떤 분야에서 보통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대중으로부터 열광적으로 사랑받는 영웅적 면모가 돋보이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타고난 신분이 고귀한 존재보다 평범한 신분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의 영웅적 면모는 일과 사랑에 대한 열정적 감성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와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수월하다. 타고난 미각으로 수라간 궁녀로 인정받다가 역모에 휘말려 귀양을 간 곳에서 의술을 배워 조선시대 최초의 여자 어의(御醫)가 된 ‘장금이’의 성공담을 다룬 <대장금>,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열정을 바친 청춘남녀의 사랑을 경쾌하게 형상화한 <경성 스캔들>, 조선시대 계유정난에서

비슷한 아버지 세대의 악연으로 원수지간이 된 청춘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공주의 남자>, 가상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첫 사랑을 잊지 못해 방황하는 왕과 무녀의 사랑을 환상적으로 표현한 <해를 품은 달> 등은 사랑이나 욕망과 같은 열정적 감성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다섯째, 복고적 정서 자극을 위한 상상력은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할 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이해 당사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극적 상황에 대한 시청자의 감정 이입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한 편의 역사드라마를 놓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근·현대사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취한 일련의 역사드라마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한다는 장르적 특성 때문에 종종 정치적 시비에 휘말렸던 것도 그래서이다. 근·현대사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2000년대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역시 이러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험벗고 굶주렸던 1960~197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취할 경우, ‘반공’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새마을운동’과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³²⁾ 복고적 정서를 자극하는 상상력이 작동하는 역사드라마가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정형화된 등장 인물의 성공담에 드리워진 ‘눈물’과 ‘웃음’을 극대화한 자기 연민의 감상성에 함몰되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곡절 많았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날 한 시에 태어나 아버지의 탐욕과 부패 때문에 운명이 뒤바뀌어 형제로

32)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 유용한 오락거리였던 텔레비전 드라마는 대중의 일상과 호흡을 함께 한다는 특성 때문에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를 관철시키는 ‘계몽’과 ‘교화’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뇌리에 새겨진 ‘친일’과 ‘반공’의 불씨가 살아 있던 196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근검절약’과 ‘저축’을 강조하던 1970년대의 이른바 ‘관제드라마’들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일련의 역사드라마들이 그 시대에 대한 시청자들의 복고적 정서를 자극하면서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의 시선을 훼손할 여지가 많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란 원수지간과 원수로 지낸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에덴의 동쪽>, ‘샐러리맨 출신의 성공한 CEO’를 모델로 했다는 점 때문에 방영 전부터 구설수에 휘말렸던 <자이언트>, 제빵계의 거장으로 성장하는 한 남자의 성공담을 통해 희망을 이야기하겠다는 기획 의도를 내세운 <제빵왕 김탁구>, 197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의 세월을 관통하면서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욕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탐색한 <빛과 그림자>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4. 나가는 말

2000년대 이후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매체의 일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 결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 환경이 구축되면서 그동안 일방적이었던 텔레비전 드라마의 수용 과정이 제작진과 시청자의 양방향 소통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역사드라마의 경우, 그동안 역사적 사실의 재구성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 사실 여부보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작된 허구의 세계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새롭게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2000년대 이후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의 장르적 외연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4년 <국토만리>가 방영된 이래 6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사드라마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반복적으로 호출하거나 재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역사드라마가 매번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당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수많은 많은 인물과 그들의 삶이 축적된 수천 년의 역사에서 ‘어느 시대, 어떤 인물’을 소환하는지는 전적으로 작가와 연출자의 몫이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선택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에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시청

자의 몫이다. 따라서 만약 역사드라마로 소환된 인물이나 사건이 시청자들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 말을 건네지 못한다면, 그것은 존재 의미를 상실한 역사드라마가 될 수 있다.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시청자의 역사의식이 중요한 것도 그래서이다. 이처럼 과거를 이야기하되 언제나 현재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드라마의宿命이다.

본고는 ‘가능성’과 ‘상상’을 중심으로 창작된 2000년대 역사드라마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20편을 의식과 정서의 차원에서 ‘민족적 의식 고양’, ‘정치적 의식 각성’, ‘혁명적 의식 고취’, ‘열정적 감성 강조’, ‘복고적 정서 자극’ 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작동된 민족적 의식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주몽>·<태왕사신기>·<전우>·<로드 넘버 원>이다. 둘째, 방영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의식 각성을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대왕세종>·<뿌리 깊은 나무>·<이산>·<선덕여왕>이다. 셋째,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 해소 방법을 찾기 위해 역사로 시선을 돌리면서 혁명적 의식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다모>·<성균관 스캔들>·<돌아온 일지매>·<추노>이다. 넷째, 사랑이나 욕망과 같은 개인의 열정적 감성 고취를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대장금>·<경성 스캔들>·<공주의 남자>·<해를 품은 달>이다. 다섯째,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복고적 정서 자극을 위한 상상력이 구현된 작품은 <에덴의 동쪽>·<자이언트>·<제빵왕 김탁구>·<빛과 그림자>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는 ‘기록된 역사’를 토대로 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나 역사적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상으로서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르적 외연을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역사적 사실 여부보다, 역사적 기록 사이의 틈에 대한 상상력에 근거하여 현재적으로 창작된 작품들이 대부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역사드라마가 교육과 계몽의

강박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한 변화에 대한 시청자의 호응이 적극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봉, 「역사극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신역사주의적 효과」, 한국드라마학회 편, 『드라마연구』34집, 2011.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문학으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 박노현, 『悲劇으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학연구』36집, 2009.
- _____, 텔레비전 드라마와 아나크로니즘의 기획.미니시리즈 <추노>의 형성소를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편, 『대중서사연구』23집, 2010.
- _____, 『드라마, 시학을 만나다』, 휴머니스트, 2009.
- 박미란, TV드라마 <다모>의 서술 방식과 재현 방식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학연구』40집, 2011.
- 박상완,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 풍란> 연구, 한국언어문화학회 편, 『한국언어문화』48집, 2012.
- _____,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추노>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배선애, TV드라마 <주몽>에 나타난 영웅 신화의 형상화 방법,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극예술연구』25집, 2007.
- 백소연, 1970-1980년대 역사극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양근애, TV드라마 <대장금>에 나타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구현 방식,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극예술연구』28집, 2008.
-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나남출판, 1994.
- 윤석진, 디지털 시대, TV드라마 연구 방법 시론(試論),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극예술연구』37집, 2012.
- 이다운, TV드라마의 역사적 인물 소환 전략,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학연구』88호, 2012.

이병훈, 「TV사극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7.

이영미, 「라디오·TV 왕조사극의 경향과 그 의미」, 대중서사장르연구회 편,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 2. 역사허구물』, 이론과실천, 2009.

이진경 편,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이환경, 『TV드라마 작법』, 청하, 1996.

주창윤,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언론학보』48집, 2004.

_____, 「역사드라마의 장르사적 변화 과정」,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극예술연구』25집, 2007.

_____, 『텔레비전 드라마 : 장르·미학·해독』, 문경, 2005.

Abstract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Genre of Korean TV Historical Drama in 2000 I

Yun, Suk-jin

Since the first historical drama <10,000 Ri of Territory> was aired in 1964, about 60 years have passed while historical dramas have repetitively called or reinterpreted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Nevertheless, the reason why each historical drama has been interpreted in a different way each time is attributed to different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of the time. Of course, calling 'a certain time and figure' amid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accumulated with a numerous number of historical figures and their lives is completely the responsibility of author and producer. However, imposing the present meaning on the selected historical figures or events is the responsibility of viewers. Therefore, if the figures or events called on historical dramas don't deliver the present meaning of the time when viewers live, the dramas come to lose the meaning of existence so that viewers' historical consciousness for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is important. Like this, it is the destiny of historical drama to interpret the past based on the current meaning.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se changes in the genre of Korean TV historical drama in 2000. At the very first, the trends of Korean TV historical dramas shown until the year 2000 were summarized, and then the dramatic imaginations of 20 historical dramas produced in the year 2000 were classified in terms of 'consciousness' and 'sentiment' into five categories: 'Raising national consciousness', 'awakening political consciousness', 'raising revolutionary consciousness', 'emphasizing passionate sensitivity',

'stimulating restoration sentiment. TV dramas that realized a dramatic imagination for raising national consciousness are <Jumong>, <Tae Wang Sa Shin Gi>, <Comrades> and <Road Number One>, those for awakening political consciousness are <The Great King Sejong>, <Deep-Rooted Tree>, <Yi San> and <Queen Seon-Deok>, those for raising revolutionary consciousness are <Damo>, <Sungkyunkwan Scandal>, <The Return of Iljimae> and <Slave Hunter>, those for emphasizing passionate sensitivity are <Dae Jang Geum>, <Capital Scandal>, <The Princess' Man> and <The Moon Embracing the Sun>, those for stimulating restoration sentiment are <East of Eden>, <Giant>, <Baker King, Kim Tak Goo> and <Lights and Shadows>. As a result of analysing dramatic imaginations of historical dramas in 2000, it was found that 'history from the view of possibility' based on 'recorded history', or 'story from imagination based on historical time and space had been focused to result in the expansion of TV drama genre.

Key words : Korean TV historical drama in 2000, history from the view of possibility, story from imagination based on historical time and space, raising national consciousness, awakening political consciousness, 'raising revolutionary consciousness, emphasizing passionate sensitivity, stimulating restoration sentiment.

접수일: 2012년 11월 15일

심사기간: 2012년 11월 20일~12월 4일

게재결정: 2012년 12월 4일